



학연화대처용무합설과 봉산탈춤

2011 전통 **춤**의 향기

예술감독 / 김 매 자
객원안무 / 채 희 완



2011. 3. 4(금) 오후 7:30 ~ 5(토) 오후 5:0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주 최 :  대전광역시 대전 MBC / 주 관 :  대전시립무용단

야외공간의 탈춤을 극장무대공간으로 옮기면서...

야외 마당에서 놀아졌던 탈춤을 극장무대 공간으로 옮겨봅니다.

명절날 세시풍속의 하나로 날잡아 고을사람들끼리 놀았던 탈춤을 아무 때나 잡아 도시 관중 아무에게나 그들을 상대로 놓는다. 길놀이와 고사굿으로 터를 닦고 천지신명께 놀이를 알리던 인사굿도 치르지 않은 채 막바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열린 공간의 것이 프로시니엄 아취, 상자무대 속으로 들어가니 갑갑하겠지요. 불을 끄고 깜깜한 데에 조명을 쓰니 집중은 되나 그 타오르던 햇불 속에 번지던 열기는 그만하고 식고 말겠지요. 있는 말 없는 말로 거침없이 재담하던 입씨름, 몸씨름도 절제된 연극대사처럼 읊조리니 목소리조차 오그려지고 조심스럽습니다. 보란 듯이 당당하고 신바람나던 걸음새도, 몸짓춤도 앞뒤 살펴 조신하니 거북하기가 말도 못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일컬어 일하던 민중들의 신명판이라 하겠으며, 허는이, 보는이 할 것없이 함께 판을 짜던 탈춤마당이라 하겠습니까?

탈춤은 탈과 춤이 재담과 소리를 타고 탈난 것을 탈잡아 놀던 '민중 생활 희비 가무 탈극'이었습니다. 제이극, 놀이극, 상항극, 민중 발언극, 환경극, 축전극, 총체가무극으로서 탈춤의 특성과 영험한 힘은 극장무대에서는 사라지고 말 뿐인가. '감성독재의 일방통로'라고 하는 프로시니엄 무대공간에서 감성적 비판의 공유와 그물망(네트워크)을 실현할 방도는 도대체 없는 것인가. 서사성이 내장된 유니버스 스타일의 '연산구조'로 틀을 잡고, 유희적 리얼리즘으로, 웃음과 울음의 희비쌍곡선으로, 역사진경의 살풀이와 신명의 복합체로서, 내면적 내향적 신명으로 축적하고 집단적 외향적 신명으로 분출함으로써 초월적 비판과 비판적 신명의 체험을 무대공간에서는 결코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

생활공간이자 문화 표출공간인 탈춤의 공간의미를 무대공간 속에 살려내는 길을 자연과 땅에 대한 우리의 공간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풍수시각'을 통해 찾으려고 합니다. '풍수시각'이란 어머니 마음으로 땅을 보면서 동기감응(同氣感應)으로 생기(生氣)를 얻거나 주체가 생기를 올라타고 있는 광경(昇生氣體驗)을 지향합니다. 생기가 흩어지지 않게 하는 장풍(藏風)과 생기를 멈추게 하는 득수(得水)가 바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이고 이가 곧 풍수시각의 중심입니다. 생기가 멎어 있는 혈처 터잡기가 요체인데, 좌향론(坐向論)으로 앞음새에서 방위잡기가 또한 모책입니다. 극장 무대공간의 터잡기와 방위잡기에서 풍수시각적 좋은 터잡기와 좋은 좌향이 원용되고, 그리고 무대공간 상의 흡집과 부정탄 것(살, 액)을 막는 비보책(裨補策)이 잘 구사된다면, 마치 풍수지리가 지향하는 승생기체험처럼 탈춤이 지향하는 비판적 신명체험을 무대공간에서도 능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짐작하는 것입니다. 놀이와 극과 굿의 복합체인 탈춤이야말로 여러 갈래의 다양한 마당에서 '비판적 감성의 신명체험'을 내면적이고도 외향적으로, 집중(수렴)과 확산(확충)의 자유로운 연동운동으로 불러 일으키는 원초적인 생태적응력의 산물입니다. 결국 연극은 마당이고, 프로시니엄 무대조차 마당의 한 갈래일 따름입니다.

이제 깜깜하게 실내공간의 불을 끄고 햇불과 모닥불 일렁이듯 '연극을 놓시다'라고 인사굿을 올립니다. 또다른 판씻음과 티벌임의 사방치기로 사위와 재담을 '뿌려주고' 우리의 눈과 감성과 혼이 서로서로 몸을 섞으니 천지사방이 깨어 일어섭니다. 이로써 현대무대공간에서 신명판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 채희완 객원안무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 한국무용평론가 회장 역임
- 전국 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역임



1. 사상좌춤

상좌 넷이 등장하여 엽불도드리, 느린 타령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춤사위는 느린 사위에서 빠른 사위로 옮겨가며 춤춘다. 상좌들은 취발이의 하수인으로서, 노장을 파게시키기 위한 취발이의 술책에 이용된다. 이 과정은 사방신(四方神)에 대한 배례의 의식무적 성격으로 보고있다. 즉 신(神)의 내림을 인도하고 탈판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이 고루 나누어지게 비는 것이며 또한 연희자들의 탈들이 사람들에게 쓰인 탈(병)을 벗겨주는 것을 기원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출연〉

오윤정(장영희) / 김지애(강영아) / 정세연(곽영희) / 류미선(이유라)

2. 팔목중춤

여덟사람의 목중이 승려의 신분을 파계하여 음주가무를 즐기며 흥에 겨워 풍류소리에 맞추어 차례로 나와 신명을 다해 춤 지랑을 한다. 마지막 여덟번째 목중이 나와 먼저 춤을 추고 나간 목중들을 불러내어 합동 춤을 춘다.

〈출연〉

3목 / 양희천(김설혜) 2목 / 김임중 7목 / 김수진(유아리) 8목 / 구재홍 4목 / 유재현(복민선)
6목 / 오송란(정인선) 5목 / 김원경(김희영) 첫목 / 박재진

3. 노장춤, 신장수춤, 취발이춤

파계승놀이로, 소무로 하여금 노장스님 앞에서 교태스럽고 요염한 춤을 추어 노장스님을 파계시킨다. 이에 노장스님은 승려의 신분을 벗어나 파계를 하고 소무와 어울려 춤을 춘다. 이에 신장수와 원송이가 등장하여 노장과 짓거리를 하다 쫓겨간다. 이어서 취발이가 등장하여 노장을 때려 쫓아내고 소무와 어울려 놀다가 소무가 취발이의 아이를 낳는다.

〈출연〉

노장 / 김기석 취발이 / 배진모 신장수 / 복성수 소무 / 장인실 원송이 / 복권민

4. 미알 영감춤

난리통에 영감을 찾아나선 할멈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영감을 만났으나 영감의 애첩인 용산삼개덜머리집과의 삼각관계에 얽혀 사랑싸움으로 영감에게 맞아 죽는다. 영감은 애첩을 데리고 간다. 이어 무당이 등장하여 죽은 미알할미의 혼을 달래주기 위하여 지노귀굿을 한다. 이는 미알할미의 좋은 곳으로 보내는 의미가 있다. 놀이판의 끝맺음을 알리는 의미와 놀이판의 마지막 정화를 위하여 잡귀를 쫓는 의식으로 탈을 태우는 의식을 겸하여 끝을 맺는다.

〈출연〉

무당 / 육혜수(이지영) 미알 / 김지원(김여진) 덜머리집 / 허은하 남강노인 / 이현수 영감 / 박재진
파리 / 김호석, 김광준 대금 / 박용호 해금 / 고주희 북 / 이강용 팽쇄 / 복성수 바라 / 이소정 장구 / 김한덕

출연진 소개



| 남기성 연출 |

- 연출가
- 놀이패 한두레 상임연출
-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과정 (미학전공)

■ 악사



피리 / 경기대학교 교수
김 호 석



대금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 용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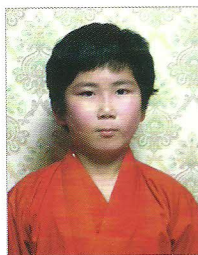


피리 / 충남국악관현악단 단원
김 광 준



해금 /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고 주 희

■ 특별출연



문화초등학교 5학년
복 권 민

